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15년 만에 최고치 이자율로 아메리칸드림 빼앗겨
- Bloomberg: 파월의 내년도 인플레이 핵심 대응은 임금 상승
- Bloomberg: 미 주택 개발자 심리 지수 12개월로 연장 하락
- WSJ: 이번 주 경제 지표 발표 스케줄

[미국 금융]

- WSJ: 이자율 높은 올해 연말에 '모기지 바이다운' 되살아난다
- Bloomberg: BlackRock, "인플레이 하락에 베팅하지 말라"

[에너지]

- CNBC: IEA, 올해 세계 석탄 소비량 사상 최고치 예상
- WSJ: 미국, 전략 비축유 팔아 40억 달러 '횡재'

[공급망]

- Bloomberg: 애플 공급업체들, 중국 외 생산 기지 가속화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올해 미국 경제 승자가 안 보인다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美 개인투자자들 주식 투자 가속...기관은 약세에 베팅
- 한경: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 사임할까?...찬성 57%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직장의 미래는 '점심 식사'다
- Bloomberg: 아마존, 곳곳에 있지만 더 이상 절대 강자 아니다
- WSJ: 도요타, "조용한 다수는 EV만이 살길이라는 입장을 의심"

[보고서]

- KOCHAM: 골드만삭스 세미나, 2023 경제 전망- 미국 경제, 한국과 중국 경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Highest Interest Rates in 15 Years Are Derailing the American Dream

15년 만에 최고치 이자율로 아메리칸드림 빼앗겨

- 이 같은 높은 이자율로 주택 꿈은 늦어지고, 비즈니스 계획은 접어야 하고, 9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용자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 팬데믹 기간 중 집값 상승과 함께 높은 이자율로 평균 집값의 모기지 부담금이 팬데믹 전 월 1천1백불에서 2천불로 올랐다.
- 중고차 구매 용자의 30% 건수가 용자를 갚아나가는 기간이 6년 이상이다.
- 그리고 자동차 용자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
- 또한 올해 초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16.3%였으나 현재 19% 선이다.
- 미국의 많은 중소기업의 직원을 크게 줄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Powell Puts US Pay Hikes at Heart of Fed's 2023 Inflation Fight

파월의 내년도 인플레 핵심 대응은 임금 상승

- 그의 내년도 인플레 통제 핵심 과제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 문제를 다루는 일이다. 그는 11월 브루클린 연구소에서 노동 시장이 인플레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말한 것. 임금이 2% 물가 목표보다 훨씬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인력 부족 현상으로 종업원들의 임금 협상력이 커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년간 인력 비용은 5% 상승하고, 그 전 1년의 3.7%였는데 인플레를 감안한 실제 임금은 지난 2년간 감소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Homebuilder Sentiment Extends Record Decline to 12 Months

미 주택 개발자 심리 지수 12개월로 연장 하락

- 모기지율이 높아지고 건축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택 개발업자 심리 지수가 올해 매달 떨어지고 있다.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Wells Fargo의 관련 지수가 이달에 2포인트 낮아진 31을 기록했다. 코비드 기간을 제외한 지난 2012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기록적으로 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 올해 모기지율 급등이 주택 구매 수요를 짓누르고, 주택 자재 비용 급등으로 건축비가 크게 올라갔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주택업자의 심리와 새로운

건축을 위축시키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Economy Week Ahead: U.S. Housing, Spending in Focus 이번 주 경제 지표 발표 스케줄

- 화: 11월 미 빌딩 신축 허가 건수 및 주택 착공 건수
- 수: 11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
- 목: 신규 주간 실업청구 건수 및 3분기 미 GDP 성장 추정치
- 금: 11월 가계 소비, 소득 지표 및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표, 11월 신축 주택 판매 건수 및 가격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Mortgage Buydowns Are Making a Comeback 이자율 높은 올해 연말에 ‘모기지 바이다운’ 되살아난다

- 모기지 바이다운은 모기지 일정액을 주택 판매자가 대신 납부해 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 일시적인 바이다운은, 가파르지만 단기적으로 모기지 금리를 줄인다. 차용인은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재설정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대출 첫해에 훨씬 낮은 이자율 혜택을 받는다.
- 이는 주택 구매자가 대출 금리를 영구적으로 낮추기 위해 선불 수수료를 지불하는 표준 바이다운(standard buydowns)과 다르다. 변동 금리 모기지와 달리 대출은 고정 금리로 다시 정해진다.
-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임시 바이다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택 판매자, 대출 기관 및 건축업자는 높은 금리에 대해 우려하는 구매자를 설득하기 위해 일시적인 바이다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은 실제 모기지 이율과 구매자가 지불하는 이율 사이의 차이를 커버하고, 그 자금을 대출 기관이 매달 넣는 관리 계정(custodial account)에 보관한다.

WSJ 기사

Bloomberg: BlackRock Bucks Bets on Plunging Inflation BlackRock, “인플레이 하락에 베팅하지 말라”

- BlackRock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에 베팅하기 시작한 거래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 BlackRock은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가 연준의 2% 목표를 향해 곤두박질친다는 컨센서스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금융사는 내년에 인플레이션 연계 부채와 투자 등급 신용을 선호하면서 국채에 대한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 recommend being underweight on government bonds in favor of inflation-linked debt and investment-grade credit next year.)
- BlackRock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약 3%로 안정되기 전에 연준이 2023년 상반기에 금리를 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CNBC: Global coal use is on course to hit all-time high this year, IEA says IEA, 올해 세계 석탄 소비량 사상 최고치 예상

-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이 1.2% 늘어 80억 메트릭톤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석탄 교역과 가격, 공급 패턴을 급격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 하지만 석탄 가격 상승, 재생 에너지의 사용,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 석탄 수요 증가가 억제되면서 상황은 복잡하다. 석탄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빠르게 대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한편 IEA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석탄 수요가 80억 메트릭톤 부근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CNBC 기사

WSJ: U.S. Scores \$4 Billion Windfall on Oil-Reserve Sales 미국, 전략 비축유 팔아 40억 달러 '횡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한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이달 중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몇 주간 원유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평균 3.10달러로 떨어졌다.
- 원유 방출 기간 동안 미국은 1억 8천만 배럴의 원유를 배럴당 평균 96.25달러에 팔았는데, 이는 최근 시장 가격인 74.29달러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미국이 거의 40억 달러를 더 번 셈.
- 한편 미국의 전략 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 올해 판매량은 1973년 아랍 석유 금수 조치 이후 최대 규모였다. 연방 에너지부가 줄

어든 SPR을 메꾸기 위해서 향후 얼마나 많은 석유를 사들일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WSJ 기사

[공급망]

Bloomberg: Apple Suppliers Accelerate Buildup Outside China, Analysts Say

애플 공급업체들, 중국 외 생산 기지 가속화

- 인도와 베트남이 애플 공급업체의 향후 제조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 집중되었던, 그리고 지정학적이고 의학적인 도전에 따른 공급망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 Counterpoint Research analysts Ivan Lam 및 Shenghao Bai에 따르면 주요 전자제품 업체들은 지역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생산 능력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
- 베트남은 21개의 애플 공급 업체들을 그 나라를 끌어들이었다.
- 한 예로 인도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이 올해 2분기에 16% 늘어난 4백40만개 유닛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2022's unlikely economic winners

올해 미국 경제 승자가 안 보인다

- The Economist는 부유한 34개국에 대해 인플레이, 인플레이 폭, 주식 시장 실적, 정부 부채 등 5개의 지표로 평가했다.
- 예상외로 그리스가 최상. 2010년대 초에 경제 성장을 이룬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선전했다. 반면에 정치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실적이 저조했다.
- 반면에 2010년대 발 빠른 개혁으로 찬사를 받았던 발트 2국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바닥을 치고 있다.
- 한편 독일과 한국의 주가는 올해 20% 가까이 하락했으며 이는 미국의 하락 폭의 두 배다. 스웨덴 주식은 더 나빠졌다. 노르웨이의 주식 시장은 올해 상승했다.

The Economist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인포:** 美 개인투자자들 주식 투자 가속...기관은 약세에 베팅
- **한경:**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 사임할까?...찬성 57%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The Future of Work Is Lunch 직장의 미래는 '점심 식사'다

-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점심 식사는 직장인들에게 시간 낭비로 여겨졌다. 불필요한 지출과 신체 체중을 증가시키고 오후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점심 식사를 되찾아야 할 때이다.
-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제자리에 앉아 있는 데서 벗어나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 오후 에너지가 늘어난다. 더욱이 식사하면서 세상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며, 대화의 장으로써 편하게 아이디어를 얻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이것은 기업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점심을 먹으면서 협상을 진행한 그룹이 이사회실에서 진행한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은 협상을 이뤄냈다는 결과도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사설: Amazon Is Ubiquitous. But It Isn't Invincible Anymore. 아마존, 곳곳에 있지만 더 이상 절대 강자 아니다

- 팬데믹의 도래로 아마존의 온라인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아마존의 온라인 스토어 매출은 2019~21년 사이 57% 성장하여 2천2백20억 달러를 넘었고, 프라임 등 구독 서비스 매출은 65% 늘어나며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아마존이 되었다.
- 하지만 아마존은 경쟁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다 경기 불황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최근 1만여 명 규모의 감원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임의 소비재보다 식료품과 필수품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면서 월마트가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 또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이 점차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많은 돈을 쓸수록 아마존에 지출하는 돈은 줄어든다. 지난 18개월 동안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체 소매 매출의 약 14%였는데, 아마존은 그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현대 소매업의 혁신을 주도하며 1박 2일 배송의 신세계를 열었다. 2021년 185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준 클라우드 플랫폼과 1천 30억달러 규모인 제3의 판매자로부터 얻는 광고, 배송 수수료 사업 등으로 보았을 때 그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Bloomberg 기사

WSJ: Toyota Chief Says 'Silent Majority' Has Doubts About Pursuing Only EVs 도요타, “조용한 다수는 EV만이 살길이라는 입장을 의심”

- 도요타 CEO가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의 ‘침묵하는 다수’가 전기차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정말 괜찮을지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도, 유행이라고 생각해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업계의 빠른 전환에 대한 불안감이 엿보이는 발언.
- 자동차 업계는 현재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완전 전기 자동차에 큰 배팅을 하고 있다. J.D. Power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해 10월 전체 신차 시장의 6.5% 수준을 차지했다.
- 하지만 여전히 배터리 부품과 원자재 확보, 충전 인프라 확보에의 어려움이 있으며, 올해 전기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 구매 여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에 도요타는 “한 가지 선택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이브리드와 수소 동력 자동차 등을 함께 개발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투자자들로부터 하여금 도요타가 EV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WSJ 기사

[보고서]

KOCHAM: 골드만삭스 세미나, 2023 경제 전망- 미국 경제, 한국과 중국 경제

KOCHAM은 12월 16일 골드만삭스의 연사를 초청해 2023년 미국 경제와 한국 및 중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래는 핵심 내용.

- 내년 5월까지 세 차례, 즉 2월, 3월 그리고 5월에 각각 이자율은 0.25%씩 올려 총 0.75% 올린다.
- 결국 내년 연말에 5%~5.25%를 올린 상태가 되는데 그런 후에 내년 말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컨센서스 0.4%보다 높은 1.3%로, 그리고 2024년도도 컨센서스 1.4%보다 높은 1.6%로 예측했다.

- 세계 경제는 내년과 2024년도에 각각 2.0%와 2.8%로 전망했으며 중국의 경우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2%, 5.2%.
- 그리고 달러와 원화 환율의 경우 달러 약세 등으로 내년에 달러당 1천2백 20원으로 전망했다.
-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침체 가능성을 35%로 보아 전문가들 컨센서스인 65%보다 낮다고 전망했다. 쉽게 말해 50% 가능성 밑으로 보고 있다.
-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잡은 원인으로는 우선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경제 성장은 낮지만 인플레이가 점차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폭의 둔화를 지적했다.
- 또한 강한 긴축 정책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긴 했어도 실직 가처분 소득이 내년도로 가면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 물론 서비스 소비와 비교한 상품 소지 성장은 여전히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미국의 금융 여건이 타이트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그러한 압박은 내년에 가서 둔화될 것으로 보여 침체 가능성을 낮게 잡았다.
-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이밖에 낮은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미국인의 낮은 모기지율에 따른 지불 쇼크(payment shock)의 긍정적인 요소, 상대적으로 낮은 하우징 리스크, 여전히 견고한 일자리와 향후 고용의 수요 공급의 균형 회복, 가솔린 가격 하락과 공급망 해소 등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 결국 이에 따라 미국의 내년도 기대 인플레이는 주로 상품 수요 둔화로 3%대로 떨어질 예정이다.
- 한편 한국의 경제는 수출과 소비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물가에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에 머물 것으로 보았다.
- 다행스러운 점은 인플레이 지속성 지표가 다른 국가들이 0.4~0.8을 지속할 때 한국은 0.3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 한편 중국은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에 다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팬데믹 여파를 받았던 부분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백신 접종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내년 1분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주택 부문은 회복이 여전히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KOCHAM 세미나 자료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올해 세계 IPO 시장 부진...공모금액 70% 가까이 급감

매파본색 파월 "내년 금리인하 없다"

파월 "서비스 부문 중심
물가상승률 예상보다 높아"
성장률·실업률도 악화 전망

올해 세계 기업공개(IPO)시장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상승의 여파로 작년 대비 70% 가까이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세계 IPO 시장에서 조달된 공모금액은 중국·중동 IPO 시장의 활황에도 미국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69% 감소한 2천70억달러(약 269조원)에 그쳤다.

IPO 시장의 침체는 최근 지속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을 강타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자본시장 책임자인 에드워드 변은 IPO 시장이 되살아나려면 물가 안정과 금리 상승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내년 2분기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는 믿음과 함께 금리 전망이 명확해진다면 시장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